

유학에서 풍요와 평화의 의미

권 정 안*

<目次>

- | | |
|-------------------------------|-------------------------------|
| I. 서론 | IV. 풍요와 평화를 망치는 것들
- 敗豐和之賊 |
| II. 풍요를 이루는 방법 - 致豐之道 | |
| III. 풍요가 이룩한 평화
- 豐之功效, 平和 | V. 풍요와 평화를 보존하는 길
- 保豐和之道 |
| | VI. 결론 |

<국문 초록>

이 글은 일반적으로 교학사상이나 윤리도덕 사상으로 알려진 유학의 다른 측면, 즉 백성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정치사상으로 서 유학이 그런 평화와 풍요에 대해 어떤 이해와 사상을 갖고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다.

이 글은 우선 풍요와 평화를 성취하는 유학적 방법을 탐구하여, 이를 개인적인 관점에서 勤儉과 사회적인 관점에서 民官의 역할과 협력관계에 대해서 논구하였다. 다음으로는 이런 풍요와 평화가 가져다주는 성취는 개인의 樂生과 사회의 평화와 문화융성으로 나타나며,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탐구하였다.

다음으로 이런 풍요와 평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들, 나아가 그 성취 과정에서 풍요와 평화를 저해하는 조건들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특히 지배층의 收奪이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것이 인간의 탐욕

* 공주대학교 교수 / jakwon@kongju.ac.kr

에 기인한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풍요와 평화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극복하여 소중한 풍요와 평화를 보존해 가는 유학적 제안들을 검토하였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사람과 제도라는 두 측면에서 인간의 노력과 실천, 그리고 오늘날에 와서는 전 인류적인 평화를 위한 연대를 필요로 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주제어】 풍요, 평화, 日用平常, 풍요와 평화의 적, 인류적 인간, 평화의 연대

I. 서론

개인과 사회는 그들이 가진 역량과 주어진 생존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삶의 조건들을 만들어 간다. 인간의 역사는 바로 그런 행복한 삶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오랜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豊饒와 平和가 필수적임을 확인하였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정이나 직장에서 갈등이 없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꿈꾼다. 나아가 모든 사회는 貧困과 戰爭의 공포에서 벗어나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이상적인 사회를 소망하여, 인류가 함께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이 말은 역으로 가난과 기근, 갈등과 전쟁이 개인과 사회의 삶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임을 의미한다. 인간소외의 근본적 원인이 기근과 전쟁이라고 한 務台理作의 말¹⁾이 아니더라도, 미증유의 풍요를 구가하는 현재도 상당수의 인류는 기근과 전쟁의 공포에서 온전히 벗어나지 못하였다. 실제로 풍요와 평화의 이상은 가족과 직장에서 갈등과 가난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꿈이며, 전쟁의 참화에 가족을 잃거나 상처를 받고 기근과 경제 불황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게 더욱 간

1) 務台理作, 『현대의 휴머니즘』, 풀빛, 1982. 참조.

절한 꿈이다.

어쩌면 갈등과 가난, 전쟁과 기근의 상처와 아픔이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평화와 풍요를 위한 인류의 치열한 노력이 더욱 의미를 갖는 것인 지도 모른다. 따라서 그런 의미 있는 성취를 망치는 것을 경계하고 지속적으로 보존 확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유학은 과연 이런 인류의 보편적인 요구와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유학의 주요한 관심은 물질적인 삶과 그 조건이 아니라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삶이다. 그러므로 배움과 가르침, 윤리와 도덕을 강조한다. 그러나 동아시아의 고대 사회에서 유학은 동시에 주도적인 정치사상이었고, 당연히 백성들의 삶, 즉 민생에 관한 강렬한 이념과 사상을 갖추고 있다는 것도 명백한 사실이다.

이 글은 바로 그런 민생의 관점에서 유학이 그 정치 사회적인 이상과 꿈을 실현하기 위해 제안한 풍요와 평화를 성취하는 방법이 무엇이며, 그 성취는 사회에 어떤 변화와 삶의 고양을 이루어내며, 또 그런 성취를 망치는 것이 무엇이며, 나아가 그 성취를 보존 확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검토한 것이다.

II. 풍요를 이루는 방법 - 致豐之道

풍요는 衣食住라는 가장 기초적인 생존조건에서 시작해서, 우리 삶을 편리하고 건강하고 여유 있게 만들어 주는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민생을 중시하는 유학적 관점에서 말하면,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가족을 부양하고 죽은 이들을 보내는 일에 아무 유감이 없는’ 상태²⁾에서 시작하여, 『書經』에서 말하는 利用厚生의 조건들이 잘 성취된 상태를 의미한다.³⁾

2) 『孟子』, 「梁惠王」上, “使民養生送死無憾 王道之始也”

3) 『書經』, 「大禹謨」, “正德 利用 厚生 惟和”

물론 이런 풍요의 많은 부분은 자연이 제공해 주는 것이다. 특히 농업 사회로 진입한 이후 농사에 우호적인 자연 환경을 가진 고대 동아시아에서 풍요는 상당 부분 자연의 덕분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대략 이백 년 마다 到來한 大洪水의 재난조차도, 결과적으로는 황하유역의 오랜 기간의 풍요를 가져오는 터전이였다.

그러나 ‘천지의 위대한 힘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오히려 부족함을 느낀다.’는 『中庸』의 말처럼, 인간은 자연이 주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또 자연은 인간의 필요를 모두 충족하지도 못한다. 그러므로 인간은 사냥에 만족하지 못하고 가축을 기르고, 채취에 만족하지 못하고 곡식을 기르고, 어로에 만족하지 못하고 養魚를 시작한 것이다.

인간의 생존과 풍요에서 자연의 힘과 역할은 중요하다. 그러나 동시의 인간의 노력도 함께 중요하다. 자연의 힘과 역할에 대한 존중과 동시에 인간의 노력과 역할에 대한 자각은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天人相助의 의식과 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書經』에서 “하늘의 일을 인간이 대신한다.”⁴⁾고 한 것, 『周易』에서 天道를 무한한 생성으로 보는 ‘生生之謂道’의 표현은 물론, 하늘이 인간도 덕성의 근원이라고 본 孔子의 ‘天生德於予’에 이르기까지, 자연과 인간 즉 天人을 서로 연관시켜 이해하는 天人相關의 의식과 문화는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다만 하늘은 홍수 가뭄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소수의 變數는 물론, 불변의 常數적인 기능과 역할도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주어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인류는 그것을 自然으로 이해하여 그 법칙에 순응하고 삶의 유용한 조건으로 활용하면서, 점차로 인간의 역할을 중시하고 그 역량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진보하였다.

그러면 생존과 풍요를 성취하기 위해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개인적으로 衣食住의 생존 조건을 확보하고, 이용후생의 풍요로운

4) 『書經』, 「皐陶謨」, “天工人其代之”

삶을 성취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방법은 근면한 노동과 소비의 절약이다. 적절한 소비가 사회의 경제적 활성화를 이끌어낸다는 말도 일리가 있지만, 개인과 가정에서 풍요로움을 이룩하는 正道는 언제나 勤儉이다. 게으름과 사치가 빈곤의 원인이라는 사실에 비추어보아도, ‘근검이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다.[勤儉 起家之本]’라는 말은 여전히 正論이다.

문제는 그런 근검에도 풍요롭지 못하고 심지어는 생존도 버거운 현실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의 전 역사에 점철되고 있다는 점이다. 孔子가 ‘농사를 짓는 것은 굶주림을 면하고자 하는 것인데, 도리어 그 가운데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⁵⁾고 한탄한 현실은 공자 시대만의 것이 아니었다.

평범한 백성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근검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다. 그럼에도 이처럼 근검한 백성들이 굶주림에 고통 받고 불안한 삶을 살아온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맹자는 一治一亂論의 역사관을 제시하면서, 인류 초기에 겪은 혼란의 두 원인을 大洪水라는 自然災害와 桀紂 같은 지배자들의 暴政 때문이라고 하였다.⁶⁾

물론 水災·旱災·蝗蟲 등 자연의 재해가 기근의 원인이 된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문제의 관건은 역시 사회적인 요소, 특히 정치와 지도자에 있었다. 맹자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로 禹의 治水와 湯武의 革命을 제시한 것 자체가 모두 문제와 그 해결의 關鍵이 정치 지도자에게 달려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면 백성의 풍요와 평화에 있어 정치권력과 지도자의 사회적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禹의 치수사업이 보여주는 역할은 농업사회에서 백성의 住居와 農地の 확보, 그리고 灌溉시설의 정비이다. 현대적으로 설명하면 산업의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다. 『書經』, 「堯典」의 冊曆은 본래 백성들에게 ‘농

5) 『論語』, 「衛靈公」, “耕也 餒在其中矣”

6) 拙稿, 「유교의 역사이해」, 『한국 현대종교의 역사이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참조.

사시기를 제공[授時]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며, 百工이라 불리는 국가의 官廳과 官吏도 주로 농사에 대한 指導와 농기구의 제작이 그 주요한 업무였다.

국가의 역할은 井田法으로 토지를 공정하게 분배하고, 관개수로를 정비하고, 천문의 관측을 통하여 농사시기를 알려주고, 농업기술과 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백성들은 가족 단위로, 마을 단위로 서로 협동하여 농지를 정비하고 근면한 노동을 통해 농산물을 생산한다.

그리고 그 생산물의 십분의 일을 세금으로 국가에 바쳐, 국가로 하여금 국가조직을 운영하고, 새로운 농업기술과 도구를 개발하게 하고, 국가 방위를 충실하게 하고, 백성의 利用厚生에 도움이 되는 공공시설을 갖추게 하고, 鰥寡孤獨과 廢疾者처럼 홀로 살기 어려운 사람들을 보살피는 社會福祉를 확충하는 것이다.

이 국가와 백성의 어울림, 노동과 기술의 합작 속에서 이루어진 농업 생산을 통해, 인류와 동아시아 고대사회는 그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풍요를 경험하였다. 민관의 협동이라는 외적인 양상을 분석해 보면, 거기에는 백성의 노동력과 국가에 의한 생산기술의 발달이 풍요의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伏羲·神農·黃帝 등의 전설적 지도자들은 각기 그들 시대의 생존 기술을 개발하고 가르친 先覺者의 상징이다. 봉건적 사회에서 이런 선각자들의 역할이 노동을 제공하는 백성들의 공로에 비해 과대하게 평가된 것은 분명하지만, 동시에 그런 선각자들의 역할과 공로를 과소평가해서도 안 된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노동과 기술이 그 사회의 생존과 풍요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는 사실이다.

그런 노동과 기술이라는 두 요소의 결합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周易』에서 풍요를 상징하는 괘인 「豐卦」이다. 이 풍괘는 움직임 즉 노동을 상징하는 震卦와, 밝음 즉 지혜를 상징하는 離卦로 이루어져 있다. 程子는 이 노동과 지혜의 관계를 ‘형체와 그림자가 서로 따르고, 결과 속이 서로 의지하는 것과 같다’고 하면서, 풍요의 성취는 이 두 요소가 밀접하

게 협동한 결과라고 하였다.

禹는 정치 지도자로서 이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근검으로 백성들의 모범이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백성과 국가의 상호 협조라는 民官相助의 원칙과 각자가 자기의 본분인 노동과 기술의 개발이라는 明動相資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사회적인 풍요를 성취하는 지도자의 역사적 모범을 확립했다는 것이다. 지도자의 계승 문제에 있어 요순과 같은 선양이 아닌 세습왕조를 열어 비난을 받았던 우에 대해, 공자가 비난의 여지가 없다고 한 것은 이런 역사적 공헌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하겠다.⁸⁾

농업사회에서 지도자의 이런 역할은 지도자만이 아니라, 현장의 지방관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농업사회의 노동 현장에서 그런 이상적인 지방관의 역할과 그들이 농민과 어울리는 사회상의 모습이 그려진 노래가 바로 『詩經』, 「豳風·七月」이다. 이 시는 농업사회에 의식주의 생존 조건을 얻는 노동과 그로서 획득된 풍요가 가져다주는 삶의 축복을 노래한다. 毛序에서 이 시를 주나라의 王業이 가능한 근거로 보는 것은 바로 이점을 지적한 것이다.⁹⁾

Ⅲ. 풍요가 이룩한 평화 - 豊之功效, 平和

개인의 풍요가 자연과 인간 사이의 天人相助를 통해 근검의 결과로 오는 것이라면, 사회적 풍요는 백성과 국가의 민관 상조를 통해 노동과 기술이 결합한 결과로 성취된다. 그러면 이런 과정을 거쳐 성취된 풍요는 개인과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가? 그것은 역으로 빈곤이라는

-
- 7) 『周易』, 「豊卦·初九」, ‘程傳’, “雷電皆至 成豊之象 明動相資 致豊之道 非明无以照 非動无以行 相須猶形影 相資猶表裏”
 - 8) 『論語』, 「泰伯」, “子曰 禹 吾無間然矣 非飲食而致孝乎鬼神 惡衣食而致美乎黼黻 卑宮室而盡力乎溝洫 禹 吾無間然矣”
 - 9) 『詩經』, 「豳風·七月」, ‘毛序’, “七月 陳王業也”

경제적 불안이 민생의 안정에 어떤 문제를 갖는 것인지를 살펴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왜냐하면 모든 정치란 본질적으로 安民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빈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安貧樂道는 선비의 기상이지만, 보통의 백성들에게 빈곤은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삶의 질곡이 된다. 자식들을 넉넉하게 먹이고 입히지 못하는 것이고,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것이고, 그들의 꿈을 이룰 기회를 주지 못하는 것이다. 빈곤은 나이든 부모에게 ‘衣帛食肉’의 봉양¹⁰⁾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아픈 몸을 돌보고 치료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한 가족의 풍요는 적어도 이런 고통과 그런 고통 속에서 자라나는 不和를 막아준다. 아니 풍요는 온 가족에게 안락한 생활과 함께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또한 풍요는 돌아간 분들을 정중하게 보내드리고, 그들의 삶을 추모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할 수 있는 여유를 준다. 이것이 安民, 즉 백성이 평화롭고 편안한 양상이다.

그리고 이런 풍요는 다시 사회 구성원 간의 평화의 가장 중요한 토대가 된다. 물론 평화는 풍요에서만 오는 것은 아니다. 공자가 ‘국가를 다스리는 자는 사람이 적은 것이 걱정이 아니라 고르지 못한 것이 걱정이고, 가난한 것이 걱정이 아니고 불안한 것이 걱정이다.’¹¹⁾라고 한 말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평화로운 관계가 풍요만이 아니라, 均平한 分配에서 오는 것임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진정한 평화는 태양이 중천에 올라 빛을 모두에게 비추듯 풍요를 모두에게 두루 나누는 ‘모두가 균평한 풍요’를 터전으로 하는 것이다. 「풍괘」의 괘사에 ‘풍요란 형통하다. 그러나 진정으로 공정한 왕자라야 풍요를 이룰 수 있으니, 풍요롭되 근심이 없으려면, 마땅히 해가

10) 『孟子』, 「梁惠王」上, “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 未之有也”

11) 『論語』, 「季氏」, “丘也聞 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중천에서 모두를 끌고루 비추듯이 해야 한다.’¹²⁾고 한 것이다.

실로 진정한 풍요는 우선 그 사회의 일부만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가정들을 모두 평화롭게 만들어 준다. 물론 앞에서 거듭 지적한대로 풍요가 곧바로 모든 측면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경제적 여유는 역시 참으로 많은 불화의 원인을 제거하는 힘을 가진 것도 분명하다. 이 풍요와 그것이 가져다 준 평화 위에서 개개인은 자신의 삶의 행복을 추구한다. 즉 사람으로 태어나 그 사람으로서의 삶을 즐기는 ‘樂生’을 구현할 수 있게 된다.

유학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가? 그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누구나 삶을 즐기는 ‘낙생’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유학에서 ‘日用平常之道’란 바로 이런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적인 삶의 행복을 위한 진리라는 의미이다. 『詩經』, 「周南·芣苢」는 바로 그런 풍요와 평화가 이루어진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노래한다.

부이는 시경 가운데 대표적인 여성들의 집단적인 축제의 舞曲歌謠이다. 이 시가 예로부터 풍요와 평화의 노래라는 인정을 받게 된 가장 중요한 상징은 바로 이 춤과 여성이라는 두 중심 개념에 있다. 춤은 낙생의 표현이다. 朱子가 ‘교화가 시행되고 풍속은 아름다워 집안이 화평하니, 부녀자들이 일이 없어 함께 어울려 이 질경이를 따면서 그 일을 노래하며 서로 즐기는 것이다.’¹³⁾ 한 것은, 이 시가 풍요에 기반한 가정의 평화와 여인들의 행복한 축제라는 두 가지 핵심을 노래한 것임을 정확하게 파악한 것이다.

어쩌면 풍요와 평화가 갖는 진정한 가치는 이 시에서 아녀자로 대표되는 사회적 弱者, 즉 어린이·노인·병자·장애인 같은 사람들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다는 점에 있다고 하겠다. 『春秋』, 公羊學에서 이상사회인 태평시대의 상징 가운데 하나가 ‘亂世나 小康世에서는 배려

12) 『周易』, 「豐卦」, 「卦辭」, “豐 亨 王假之 勿憂 宜日中”

13) 『詩經』, 「周南·芣苢」, 「朱熹集傳」, “化行俗美 家室和平 婦人無事 相與採此芣苢 而賦其事而相樂也”

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회적 약자들의 자살한 아픔과 요구도 모두 배려할 수 있는 것¹⁴⁾이라 한 것은 바로 이런 의미이다.

사회적 약자들의 모든 아픔이 우선적으로 배려 받고, 평범한 사람들의 소소한 요구도 충분히 수용되어 모두가 바로 그 자리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 풍요와 평화의 이상사회가 갖는 모습이다. 이런 사회상이야말로 유학에서 말하는 ‘各得其所’의 이상이며, 『예기』의 대동사회가 말하는 내용도 여기에서 멀지 않다.

나아가 사회적인 풍요는 개개인들의 意識에 溫柔敦厚한 기풍을 길러 인정이 넘치는 사회 風俗을 길러주고,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누릴 이용 후생의 사회적 기반을 확충하고, 文王의 靈臺처럼 풍요를 성취한 백성과 지도자가 함께 與民同樂하는 樂生의 餘暇施設을 갖추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충분한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힘이 된다.

유학이 추구하는 ‘平天下’의 이상이나 ‘各得其所’의 내용이나 퇴계가 말한 ‘措世於隆平’과 『예기』에 나오는 ‘大同社會’의 꿈은 모두 이 풍요를 토대로 평화를 성취한 사회와 그런 사회에 구현된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의미하는 것이며, 모든 시대의 유학적 지성들이 꿈꾸며 실현하고자 한 것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어찌 유학뿐이겠는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류가 제안한 모든 사상과 철학과 종교도 마찬가지이다. 비록 제각기 그 표현을 달리한다 해도, 풍요와 평화가 이루어져 가난과 전쟁이 없는 세상을 건설하는 것은 모든 인류의 진정한 스승들과 지성들이 함께 꿈꾸며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다.

IV. 풍요와 평화를 망치는 것들 - 敗豐和之賊

풍요는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울려서 만드는 것이고, 개인과 국가가 함께 협력해서 성취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개인의 행복한 삶과

14) 拙稿, 앞의 책. 참조.

진정으로 문명한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기초이다. 그러므로 우리 인류는 그런 풍요와 평화를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왔고, 그런 이상이 실현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분투해 왔다.

그리고 인류의 오랜 역사에서 우리는 간간히 이런 풍요와 평화의 시대를 건설하는데 성공한 경험을 갖고 있다. 다만 풍요와 평화를 이룩하는 과정은 기근과 싸우고 전쟁을 종식시키는 분투의 시간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룩한 성취를 누리는데는 대개 그런 분투를 겪은 다음 세대의 것이었다. 그런 혜택을 누리는 세대에게 그것은 하늘이 준 幸運이나 祝福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세상의 일은 모두 좋은 것은 없으며, 언제나 좋은 것도 없다. 풍요와 평화는 개인적으로는 안락한 삶의 터전이 되어주고 사회적으로는 풍성한 문화발전의 기반이 되어주는 것이지만, 동시에 그런 평화와 풍요는 개인의 삶을 懶怠와 安逸로 이끌고 사회를 貪慾과 享樂의 정글로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無事安逸’은 전쟁과 기근에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는 꿈에도 그리는 이상이지만, 그것을 삶의 기반으로 누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無憂地獄’이기도 하고, ‘안으로는 여색에 심성이 황폐해 지고, 밖으로는 사냥에 빠져 심성이 황폐해 진다’는 『서경』의 경고¹⁵⁾처럼, 우리 인간의 심성을 황폐화시키고 삶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함정이기도 하다. 맹자가 ‘배부르게 먹고 따듯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면서 교육이 없다면, 바로 짐승에 가까워진다.’¹⁶⁾한 경고는 바로 이런 풍요와 평화가 주는 삶의 위험을 보여준다.

우리 속담에 ‘총명한 사람이 가난하게 태어난 것은 이중으로 축복을 받은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엄혹한 試鍊 속에서 풍요와 평화를 성취하는 사람들은 저절로 뛰어난 역량을 갖추지 않을 수 없음을 비하여, 그렇

15) 『書經』, 「夏書·五子之歌」, “訓有之 內作色荒 外作禽荒 甘酒嗜音 峻宇彫牆 有一於此 未或不亡”

16) 『孟子』, 「滕文公」上, “人之有道也 飽食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게 만들어진 풍요와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런 역량을 갖출 기회 자체가 거의 없는 것이다.

물론 성취하는데 무능하다는 것이 누리는데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대개의 경우 누리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공자가 ‘어질지 못한 사람은 가난을 오래 견디지 못하지만, 행복을 오래 누리지도 못한다.’¹⁷⁾라고 한 말처럼, 평화와 풍요를 제대로 지켜가면서 누리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풍요와 평화가 온유둔후한 심성과 풍속을 만드는 대신에 탐욕과 향락을 조장하여 인간을 짐승으로 전락시키고, 그 풍요와 평화의 행운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도리어 망치는 소인이 되는 이 逆說과 悲劇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특히 그런 소중한 풍요와 평화를 지속적으로 오래 누리지 못하게 하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가 문제이다.

그것은 ‘안일을 좋아하고 고생을 싫어하며[好逸惡勞]’, ‘처음에는 근면해도 나중에는 게을러지는 것[始勤終怠]’ 인간의 일반적인 속성에서 온 것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아마 그 근본적인 원인은 인간의 무한한 탐욕일 것이다. 옛날의 지혜로운 현인들이 한결 같이 욕망의 節制와 知足, 그리고 寡慾을 강조한 것은 이런 인간에 대한 이해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사실 풍요와 평화를 성취한 뒤만이 아니라, 그 성취의 과정 자체에서부터 성공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은 대개 잘못된 정치권력과 지배자들에 있었다. 본래 그들의 존재목적은 禹의 예에서 보듯이 근검을 통해 이룩한 백성들의 성취를 바로 그 백성들과 가족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온전한 지도자는 당연히 ‘온 천하 사람들 가장 뒤에, 그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다.’¹⁸⁾는 의식을 갖는다.

17) 『論語』, 「里仁」, “不仁者 不可以久處約 不可以長處樂”

18) 范仲淹 「岳陽樓記」(『古文眞寶』), “先天下之憂而憂 後天下之樂而樂”

이런 의식을 가진 지도자는 풍요와 평화를 위한 正義를 구현한다. 공자가 “정치는 바로잡는 것이다[政者 正也]”¹⁹⁾한 것은 不正을 바로잡는 正義의 구현이 정치의 본질임을 간파한 것이지만, 그것은 또한 풍요를 성취하는데 공헌하지 않은 자들이 그 풍요를 누리거나 심지어 독점하는 불의를 바로잡는 것이 정치권력과 그 지도자의 역할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역할은 단순히 백성 가운데 無爲徒食하는 모습들을 정치와 법률을 통해서 방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근검으로 이룩한 성취를 훔치고 빼고 속임수로 가로 채는 모든 불의를 制度로 막고, 정치로 바로잡고, 교육으로 예방하고, 법률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대부분의 인류 역사 속에서 풍요와 평화를 망치는 가장 심각한 원흉은 이런 정의를 구현해야 할 책임을 가진 정치권력과 지도자 가운데 있었다. 『詩經』, 「魏風·碩鼠」에서 ‘큰 쥐[碩鼠]’라고 풍자한 자들이다. 그것은 특히 전쟁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갈등과 불화, 그리고 기근 없는 상태에서 근검한 사람들의 가난이라는 많은 역사적 현실들이 바로 人道와 正義를 망각한 평화와 풍요의 또 다른 적, 즉 변질된 정치권력과 지배자들 때문이었음을 의미한다. 심지어는 전쟁과 자연적 기근이 없었던 풍년에도 모면하지 못했던 ‘사회적 기근’은 바로 이런 평화와 풍요의 적들에 의해서 야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¹⁹⁾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적 풍요를 軍國主義的 역량으로 삼아서 국제적인 평화를 깨는 힘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저 한나라 때 文帝·景帝가 이룩한 풍요와 평화를 망친 漢武帝의 瀆武로부터 근대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수탈과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풍요를 내외의 평화가 아니라 침략의 수단으로 삼는 야만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풍요와 평화의 적이다.

19) 『孟子』, 「梁惠王」上, “今也 制民之產 仰不足以事父母 俯不足以畜妻子 樂歲 終身苦 凶年不免於死亡”

저 풍요가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것은 하늘과 사람이 함께 이루고 백성과 국가가 협력하여 성취한 성과이다. 그 성취를 모두가 골고루 향유하는 대신에, 권력자와 소수의 지배계층이 무한한 탐욕으로 독점하고, 그것을 그들의 향락의 도구로 쓰는 것이야말로 풍요와 평화를 망치는 근본적인 원인이다.

저 현인들의 節制와 知足과 寡慾이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삶의 지혜로 제시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런警句가 주로 겨누고 있는 것은 바로 저 지배층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평범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은 본래부터 그들의 노력 이상을 누리겠다는 탐욕을 부린 일이 없기 때문이다. 적어도 저 지배자들이 그런 나쁜 모범을 보이기 전까지는 그렇다.²⁰⁾

V. 풍요와 평화를 보존하는 길 - 保豐和之道

풍요를 망치는 원인을 안다는 것은 풍요를 지속적으로 보존해가는 방법을 안다는 말이다. 그 핵심은 역시 人間과 制度에 달렸다. 풍요를 얻기 위해 정직하게 근검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그 성취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고, 노동하지 않으면서 흠치고 뺏고 속이는 자들을 법으로 막으며, 권력과 금력이 수탈체제로 변질되지 않게 하는 것은 모두 인간과 제도에 달린 것이다.

그 첫걸음은 공자나 맹자의 인간에 대한 신뢰와 존중과는 달리 현실의 인간은 만족을 모르는 욕심쟁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들은 평화와 풍요의 힘조차 더 큰 욕심을 충족시켜 줄 도구로 삼아 무한한 탐욕의 길을 걷는다. 개인이건 사회이건 그런 유혹을 절제할 수 있는 역량은 참으로 갖추기 쉬운 것이 아니다. 지금 세계에서 이른바 국민소득의 증대로부터 자유로운 사회가

20) 『大學』, 9章, “堯舜帥天下以仁 而民從之 桀紂帥天下以暴 而民從之”

하나도 없는 것이 그 어려움을 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유학의 대답은 무엇일까? 우선 물질적인 利用厚生보다 도덕적인 正德을 앞세운 『書經』의 사상이 그 해답의 하나이다. 이렇게 보면 유학에서 인간다운 삶이나 도덕적인 삶을 강조한 것 자체가 바로 저 공동체의 풍요와 평화를 성취하는 것이 도덕성, 특히 지도층의 도덕성에 달렸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詩經』, 『唐風·蟋蟀』에 보이는 ‘安逸을 경계하고 절제와 근검의 자세를 지키고자 하는 인간상’은 그런 지도층의 건강한 의식과 실천을 잘 보여준다. ‘始勤終怠’의 위험을 자각하여 항상 도덕적 긴장을 유지하고, 『大學』에 나오는 ‘日新又日新’이란 湯의 盤銘처럼 반성을 통해 부단히 자기 혁신을 이루어 가는 지도자와 지도층이 요청된다.

그런 지도자는 바로 孔子가 『論語』에서 제시하는 君子라는 인간상이다. 일반적으로 공자가 제시하는 君子상은 풍요와 평화를 만들고 누리는데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이 때문에 安貧樂道의 君子상이 현대사회에서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다. 아니 현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시대 현실에서 君子는 지배자들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크게 선택받고 인정받지 못한 인간상이다.

자신의 부귀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이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니다. 공자가 ‘各從其志’라 한 것처럼 인간은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자신의 富貴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실은 君子가 지도자로 선발되고 지도자로 인정받은 경우가 적었다.

이런 현실을 넘어서려면 ‘가난을 걱정하지 않고 도를 걱정하며, 먹고 사는 일을 도모하지 않고 도를 추구하는 君子²¹⁾가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書經』 이래 동아시아에서 ‘尊賢使能’이 인재를 등용하고 대접하고 쓰는 원칙이지만, 그 사람이 인재인지를 판단하는 핵심은 지금도 역시

21) 『論語』, 『衛靈公』, “子曰 君子謀道不謀食 … 君子憂道不憂貧”

도덕적 군자인가에 달렸다.

풍요와 평화를 보존하는 제도는 어떤 것인가? 유학에서 富民安民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가장 강조하는 것은 禮義教育이다. 이 때문에 적어도 유학적 이념에 따른 정치를 할 때는 不義가 행해진 뒤에 그것을 막는 ‘法과 刑罰의 制度’를 補助로 삼고, 불의를 未然에 방지하는 ‘教育과 禮義의 文化를 高揚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아, 仁義와 禮讓의 氣風을 진작하기에 힘쓴 것이다.²²⁾

그런 측면에서 공자가 그 回復을 열망하고 계승자가 되고자 했던 周禮의 文化精神과 制度原理는 특히 소중한 자산이다. 周禮 자체는 ‘박물관에 들어갈 구시대의 封建 遺物’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속에 禮樂으로 人文主義 文化를 創出하고, 人道와 正義의 原理로 秩序와 統攝을 아우르는 사회제도를 만들어, 종족과 지역과 종교와 文化를 달리했던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풍요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건설했던 역사적 경험과 그 속에 담긴 인간 정신은 오늘날에 와서 더욱 가치가 있다.²³⁾

공자가 『논어』에서 ‘繼周者’라고 불렀던 것은 바로 이 주례의 문화정신과 제도원리를 계승한 사회를 말하는 것이며, ‘觚不觚’를 한탄 것도 이 정신과 원리를 담은 文物의 변질을 아쉬워한 것이다. 문화와 제도는 시대의 변화와 기술의 진전에 따라 당연히 損益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정신과 원리는 百代 뒤에도 여전히 소중한 것이다. ‘知時識勢’는 栗谷이 社會制度를 更張하는 원리로 제시한 것이지만, 제도의 정신과 원리를 유지하면서 隨時損益하는 것이 時中의 모습이다.

사람과 제도, 엄격하게 말해서 有德한 君子와 백성을 위한 제도는 풍요와 평화만이 아니라, 모든 사회적 가치를 만들고 지키고 이어가는 두 개의 수레바퀴와 같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도 같다.

22) 『論語』, 「爲政」,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23) 拙稿, 앞의 책. 참조.

VI. 결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가난을 떨치고 풍요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개인과 사회도 있고, 어렵게 성취한 풍요를 누리면서 그것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힘을 쓰는 개인과 사회도 있다. 현대사회의 이런 흐름의 근저에는 전통적 유학과는 전혀 다른 인간관과 사회관이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은 과거와 달리 인간의 욕망을 긍정하고, 그 욕망을 사회의 경제적 발전의 동력으로 인정한다. 이런 인간관과 사회관은 과학발전과 함께 지금의 물질문명의 큰 성공을 가져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런 인간관과 사회관은 개인과 사회의 풍요를 위한 무한한 탐욕과 무한한 경쟁을 초래했고, 그리고 그 결과 우리 인류는 資源枯渴과 環境破壞라는 전 인류적 危機에 직면하고 있다. 타인과 타국은 물론 인류 전체의 생존을 도외시하고 자신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야만이 횡행할 뿐 아니라, 그런 의식이 우리 인류 개개인의 내면적인 심성 속에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우리는 현재가 인류의 문명사적 위기라는 사실을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당연히 여러 가지 대안과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부 선진국에서 제안되고 있는 제로성장론과 전 인류와 지역의 均衡發展을 추구하는 운동, 그리고 평화를 위한 인류적인 連帶 등이 제안되고 실천되고 있다. 그 모두는 소중한 대안들로 가치를 갖는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풍요를 성취하는 과정이나 그것을 향유하는 과정이나 보존하고 키우는 모든 과정에 그 풍요와 평화를 해치는 敵이 있다는 사실이며, 그 모든 과정은 바로 이런 적들과의 싸움을 필연적으로 거치면서 얻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그 적은 우리 인간 내면과 사회 모두에 있다.

전통적 유학적 관점에서 말하면, 그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 우리 자신

의 내면에 있다. 실제로 이 글을 쓰는 필자도 그 싸움에서 수도 없는 패배자이다. 그래도 필자는 유학의 가르침을 배우는 학자라는 행운 덕에, 성현의 말씀에서 위안을 받아 패배를 딛고 다시 싸울 용기를 얻는다. 그 용기의 근원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모두 같은 인류라는 동질성, 그리고 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소중한 인간이라는 자각이 아닐까?

그래서 나는 이 싸움에 패배한 사람이나 지금 싸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싸우는 同志라는 연대감을 갖는다. 그것은 그들과 내가 제각기의 의식 속에서 務台理作이 말한 ‘인류적 인간상’을 자각하고, 자신을 그런 인류적 인간으로 세워가는 과정에서 얻은 가장 빛나는 성취가 아닐까 한다.

그렇게 우리는 위로는 천고의 성현들과 벗이 되며, 한 번도 본 일이 없는 벗들과 동지가 된다. 그렇게 우리는 시대를 넘어 ‘尙友千古聖賢’하는 것이고, 공간을 넘어 ‘宇內存知己 天涯若比隣’이란 말을 실현해간다. 저 성현들의 소망은 각국의 국민들이 모두 이런 인류적인 인간상을 키워서 평화를 위한 연대의 기초를 만들고, 모든 국가들이 열린 주체성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문명한 인류공동체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것이 유학의 修己治人이 갖는 현대적 의미가 아닐까?

<參考 文獻>

『經書』,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詩經』, 學民文化社.

『書經』, 學民文化社.

『易經』, 學民文化社.

『古文眞寶』, 明文堂.

마르셀 그라네, 신하령·김태환 역, 『중국의 고대축제와 가요』, 살림, 2005.

務台理作, 『현대의 휴머니즘』, 풀빛, 1982.

유승국, 『유가철학과 동방사상』, 『유교문화연구총서』 11,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10.

拙稿, 「유교의 역사이해」, 『한국 현대종교의 역사이해』,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7.

羅祖基 편, 『공자사상연구논집』, 곡부사범대학 공자연구소, 1986.

林慶彰 편, 『중국경학사논문선집』, 문사철출판사, 1989.

岳 斌, 『중국춘추전국문학사』, 인민출판사, 1994.

Abstract

*Meaning of richness and peace in Confucianism / Kwon Jeong An**

Confucianism seeks for the truth that happiness can be obtained from everyday's lif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make people happy are richness and peace. Therefore, this paper is to study the impact of richness and peace on happiness from Confucianism's point of view.

Firstly, the way to achieve richness was discussed. It could be achieved through thrift of individuals and cooperation between citizens and officials. The power of labor and knowledge could be driven by this way. Secondly, the result that could be brought by richness was addressed. The results are enjoyable life, thoughtful mind, humane custom, culture development and peace enhancement. Thirdly, the factors that ruin peace are addressed. Individually, the main factors are seeking pleasure and ease but the underlying factor is human's greed which fosters thieves, robbers and swindlers. But historically, those factors which have ruined the peace are twisted political power and rulers. Fourthly, the ways to resolve these challenges and to preserve richness were analyzed. Both humans and systematic sides were addressed and ethical leader, courtesy and policies based on human and truth were found to be the ways.

As a result, it is suggested that every human being needs to establish desirable human characters from their inner side that fight against selfish greed. Then seeks for solidarity with those people and deal with humankind crisis as a whole

【Key words】 Richness, Peace, Foe of richness, Humane person, Solidarity of peace

투고일 : 4월 28일, 심사일 : 5월 22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

* Professor of Kongju National Univ. / jakwon@kongju.ac.kr